

신장 이식 후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 양상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장기이식 연구소¹, 외과학교실²

양재석, 박혜영¹, 김계양¹, 이승표, 안규리, 한진석, 김성권, 이정삼, 하종원², 김상준²

목적: 바이러스 감염증은 신장 이식 환자들의 중요한 합병증인데, 보다 강력한 새로운 면역억제제들이 신장 이식 환자들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, 바이러스 감염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. 특히, 감염증의 양상은 나라나 각 장기이식 센터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기관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양상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.

방법: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995년 1월부터 2002년 2월 사이에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 중,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장 이식 후 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구체적으로는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의 현황, 위험요인 및 예후를 분석하였다.

결과: 이 기간 중 총 352건의 신장 이식이 이루어졌는데, 생체 신장 이식과 사체 신장 이식이 각각 273예과 79예이었다. 52명의 환자에서 총 61건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였고, 4명의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환자들에서 간기능이 악화되는 소견이 발견되었다. Varicella zoster 바이러스 감염증이 33예(54.1%),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증이 12예(19.7%), CMV 감염증이 10예(16.4%), PTLD와 연관된 EBV 감염증 1예, 간질성 신염과 관련된 BK 바이러스 감염증이 1예, Influenza A 감염증이 1예 발생하였고, HHV-8과 연관되었다고 알려진 Kaposi's sarcoma가 3예 발생하였다. VZV 감염증은 Mycophenolate mofetil 사용과 관련이 깊었고($p=0.003$), 이식 신장 소실의 위험이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낮았다($p=0.023$). 이에 반해 CMV 감염증은 이식 신장 소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듯한 경향을 보였다. Varicella zoster 감염증이나 Herpes simplex 감염증은 acyclovir 또는 famciclovir 등의 항바이러스제의 주사나 경구 투여로 잘 치료되었고, CMV 감염증은 면역억제제 조정과 ganciclovir 주사를 통해 호전되었다. 8명의 HBsAg 양성 환자에 대해서도 신장 이식이 이루어졌는데, 이식 후 8명 중 5명에서 HBV DNA검사나 HBeAg이 양전되었고, 4명의 환자들에서는 간기능 검사 소견이 악화되었다. Anti-HBc IgG 항체만 양성을 보였던 63명의 환자들이나 2명의 anti-HCV 양성 환자들은 이식 후 간기능 검사 소견이 악화되지 않았다.

결론: 신장 이식 후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증들에서 Varicella zoster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장 많고 예후가 좋았다. 그리고, 비교적 예후가 나쁜 CMV 감염증이나 재활성화가 잦은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 환자들은 신장 이식 후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.